

전주시민 미국문화 속으로 '풍덩'

전주시, 10일까지 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미국을 경험하다' 전주세계문화주간 행사

미국문화주간을 맞아 전주시민들이 미국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시는 7일부터 9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소리문화관, 혁신동 주민센터 등 전주시일원에서 2018 전주세계문화주간-미국주간에 참여한 해외 아티스트와 시민들이 만나 문화를 배우고 함께 즐기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2018 세계문화주간-미국주간은 전주시가 대한민국 문화수도임을 자부하며 오리지널 해외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해외문화를 소개하고, 글로벌 문화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열고 있는 행사다. 지난 2016년 프랑스문화주간과 지난해 영국문화주간에 이어 올해로 3년째 열린다.

이번 시민참여프로그램은 방송 관

련분야 대학생과 사진동호회, 지역아동센터 아동, 다문화가족,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세계적인 포토저널리스트인 제레미믹과 우쿨렐레 콘테스트 그랑챔피언인 우쿨렐레 연주그룹 호노카에이저타, 빅사이즈 여성그룹인 프리티비무브먼트로부터 사진과 우쿨렐레, 댄스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먼저, 7일에는 우쿨렐레 콘테스트 그랑챔피언으로부터 악기 연주법을 배울 수 있는 우쿨렐레 워크숍이 소리문화관 대청마루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리티비무브먼트 댄스워크숍도 열렸다.

이어 8일에는 포토저널리스트 제레미믹의 삶과 스토리가 있는 사진 촬영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사진워크숍이 방송관계자와 관련 분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팔복예술공장에서 진행되고, 혁신동 주민센터에서는 여성

들을 대상으로 한 댄스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미국문화주간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전주지역 사진동호회원을 대상으로 한 제레미믹의 사진워크숍과 우쿨렐레 동호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우쿨렐레 워크숍이 각각 팔복예술공장과 전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번 미국문화주간은 지난 6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 주요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픈닝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립무형유산원과 팔복예술공장,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전주시민들의 다양성이 특징인 미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7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제레미믹의 전시가 진행됐으며, 교동아트 잔디정원에서는 미국영화 상영하는 무비나이트와 바베큐 클래스&파티가 열렸다.

8일에는 전주소리문화관에서 우쿨렐레 연주그룹 호노카에이저타의 공

연이 펼쳐지고, 9일에는 빅사이즈 여성으로 구성된 프리티비무브먼트의 합창공연인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미국문화 주간 동안 종남문광장과 전북대학교 구정문 등에는 미국대사관이 준비한 핫도그와 샌드위치 등 미국 길거리 음식을 만날 수 있는 푸드트럭을 만날 수 있다.

시는 이번 미국주간행사를 단순히 미국문화를 알리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전주를 방문한 미국 아티스트와 대사관 관계자 등에게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3회째 맞는 전주세계문화주간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교류의 결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면서 "대한민국 문화지수 1위인 전주시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의 강점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노후경유차 폐차로 미세먼지 줄여요

전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전주시가 노후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감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올 하반기 총 8억 400만원을 투입, 약 600여대의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총 4억8천170만원을 들여 노후경유차량 및 1톤 이상 트럭 379대를 조기폐차토록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시 에너지전환과와 35개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중 최근 2년 이상 연속 전주시에 등록이 돼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단,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지원액 상한액이 없다. 2001년~2005년 사이 제작된 차량은 연식과 중량, 배기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이고 배기량이 6000cc를 초과한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사회적 공헌·약자 30%, 1톤 이상 화물차 40%, 일반 30%로 배정물량을 설정해 각 분야별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공헌·약자 및 화물차 신청자가 배정물량에 미달시 일반 참여자에 배정·지원한다.

/송효철 기자

"K-Culture의 중심 도시 전주가 좋아요"

외국인 대학생 관광아카데미 'TPO K-CLIP 2018' 개최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외국인 학생 50여명이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7일 전주향교문화관에서 TPO K-CLIP 2018의 공동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과 신연성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사무총장, 그리고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타이완 등 미주와 아시아 지역 9개국 5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6일까지 11일동안 이어지는 외국인 대학생 전주관광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전주시와 TPO가 공동 주최하고 전라북도과 군산시, 익산시, 임실군, 남

원군이 공동 후원하는 외국인 대학생 전주관광아카데미 'TPO K-CLIP 2018'은 TPO 회원도시의 외국인 대학생을 초청, 전주·전북지역 K-Culture를 보고 이해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관광프로그램이다.

7일 개막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신연성 TPO 사무총장, 그리고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타이완 등 미주와 아시아 지역 9개국 5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6일까지 11일동안 이어지는 외국인 대학생 전주관광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이들은 외국인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전통 한복을 입고 경기전을 찾아 한국음식과 생활문화를 배우기 위해 전주비빔밥과 한지, 전통예절체험프로그램에 참가했고 국립무형유산원 전시관과 전주박물관 등 유형·무형유산에 대한 현장답사와



전주시는 외국인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6일까지 11일동안 이어지는 외국인 대학생 전주관광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더불어 덕진공원과 팔복예술공장을 돌아보고 전주 옛길(격리단길)과 영화마을의 거리를 탐방했다.

이들은 7일부터 11일까지는 전주에

서 교육을 받고 이어서 군산과 익산, 임실과 남원 등지를 돌며 전북지역 문화체험과 역사탐방을 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침체된 전주경제 자금지원으로 숨통 틔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기 살리기에 나선 전주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미·중간 무역 분쟁과 내수 부진, 전례 없는 폭염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원을 추가 확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생산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총 60억 규모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앞서 상반기 지원했던 82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142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03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38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시는 전주시 소재 제조업체·벤처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8월 중 용자지원 신청접수를 받아 추석 전에 자금용자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용자 용도는 운전 및 창업 자금으로, 한도액은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하되, 기업은 3억원 이내, 소상공

인은 2000만원 이내 지원기로 했다. 용자기간은 2년으로 일반기업은 3.0%, 여성·장애인 기업, 벤처기업, 바이전주업체 등은 3.5%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자지원 대상 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용자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중 8개 금융기관에 용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 총 82억원의 육성자금으로 벤처기업·이노비즈 10개사(21억6000만원), 여성기업 11개사(21억원), 일반기업 11개사(25억2000만원), 청년기업 6개사(9억8000만원), 소상공인 9개사(1억7500만원) 등 총 48개사에 용자를 지원했다.

실제, 시는 상반기 총 53개사를 방문해 52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해 왔다. 일례로, 판로확보 지원을 요청한 기업 애로사항해소를 위해 지난 4월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시 및 설명회를 하고 부서 공공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중소기업 14개사 제품을 전시 및 PT발표함으로써 기업 판로확대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송효철 기자

열린점자작은도서관, 시각장애 인식개선 위한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열린점자작은도서관은 장애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점자 영화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열린점자작은도서관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이 영화제의 일환으로

영화 '수상한 그녀'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배리어프리 영화란 '장벽(barrier)'과 '없음(free)'을 합친 단어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장면에 대한 음성 설명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속 대사 및 소리 등의 자막표기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다.

이번 열린점자영화제에는 선착순 30명 모집 후 무료로 진행되며 열린점자작은도서관 홈페이지(http://vipdl

.org/)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원경 열린점자작은도서관장은 "지역주민들이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감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